

청정 제주해수욕장 비양심에 ‘몸살’

관광객 많은 협재·금능
음식물에 술병 등 뒤범벅
화장실은 쓰레기로 가득
주민 “무단투기 매일 반복
청정 이미지 훼손 우려돼”



협재와 금능해수욕장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강민성기자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알려진 협재·금능 해수욕장 화장실이 많은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비양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밤 협재해수욕장은 늦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모여든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거나 해변을 거닐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목격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화장실에 마구잡이로 버리면서 다른 방문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실에 들어서니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음주를 하고 버려진 술병, 음료수 페트병, 컵라면, 휴지 등 생활쓰레기들이 버젓이 나뒹굴고 있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들도 드문드문 목격됐다. 10여분 정도 현장을 지켜

본 결과 관광객들이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투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기도 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 조모(32)씨는 “제주의 자연과 너무 대조적이다. 화장실에 들르니 쓰레기들로 너무 더러워 기분이 안좋았다”며 “한 사람이 버렸다고 무차별적으로 버리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적어도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금능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였다. 화장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수북이 쌓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탁자에 꽂 차 있었다. 화장실 변기에는 무단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울러 치킨 뼈, 과자 봉지, 음료수 캔 등이 담긴 비닐봉투들이 화장실 구석에 빼곡히 자리잡고 있었다.

이를 본 주민 강모(67)씨는 “어름이 되면 관광객들이 줄 이어 오는데 매년 쓰레기를 화장실에 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화장실은

쓰레기장이 아니다. 몰지각한 관광객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이어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또 수북이 쌓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야간 이용객이 많은데 행정에서 야간에 쓰레기를 치워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중 한림읍 부읍장은 “근무 시간을 조정해 야간에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열일’하는 바다지킴이, 하지만...

노동 강도 매우 높아도 임금 수준 열악

청정제주바다지킴이들이 헌신적으로 해양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해안에는 바다지킴이들이 해양쓰레기들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바다 인근에는 페트병, 낚시줄, 폐어구, 그물을 비롯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이들은 바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쓰레기들을 손으로 직접 꺼내 하나하나 분리수거 후 마대에 담았다. 또 페그들이 바위 사이에 박혀 사람 힘으로 어찌하지 못할 땐 가위로 직접 잘라가며 수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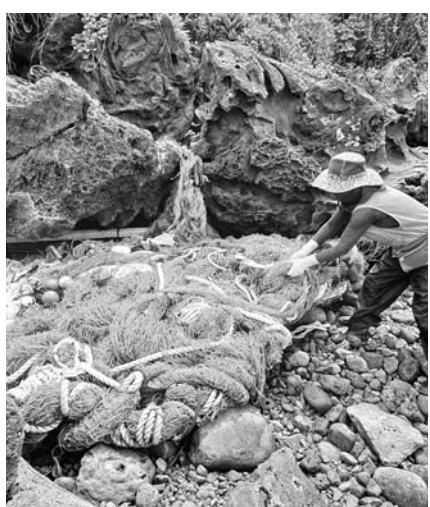
>> 사진

이렇듯 해안가에 쌓인 많은 쓰레기들로 인해 한 구역을 치우는데도

족히 수 시간이 걸렸다. 장화를 신은 이들은 돌을 밟으며 지나다니는데, 미끄러워 넘어지는 모습도 간간이 목격됐다.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서 수거한 쓰레기 마대를 도로 위쪽으로 직접 들어올렸다. 해안가와 인접한 도로의 경사가 매우 가팔라 자칫하면 넘어질 것 같았지만 이들은 능숙하게 도로 위로 올렸다. 도로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다시 내려와 작업을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애월읍에서 2년째 바다지킴이를 하고 있는 신화숙(58)씨는 사망감 하나를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다의 해양쓰레기를 치우며 내 집을 치우는 것 같다는 보람을 느껴서다. 그는 바닷가 인근에 쓰레기가 너무 많



아 본인이 직접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다지킴이에 지원했다.

신씨는 “일의 강도가 세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온몸이 멍투성이지만 괜찮다”며 “바다를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관광객들이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해 작년 이어 올해도 바다지킴이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정에서도 관광객·도민들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애월읍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애월읍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다지킴이는 총 11명이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팀으로 나눠 해양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애월읍의 해안 길이는 16.5km로 11명이 해안선을 전부 관리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또 바다지킴이들이 구역을 이동할 때 관공차가 아닌 자차로 움직이고 있어 바다지킴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인희 애월읍사무소 소독지원팀장은 “11명이 애월읍 해안선을 전부 책임지고 있어 이들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다”며 “제주 생활형 임금에 의거해 임금을 받고 있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올해 37건... ‘A형 간염’ 주의보 도 “환자 발생 작년 한 해 수준 이미 넘어”

제주지역에서 최근 생굴, 조개젓 등을 섭취해 A형 간염에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37건의 A형 간염이 신고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33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A형 간염의 전파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생굴 등 조개류 섭취, 환자의 분변 및 경구 감염, 성접촉 등이다. 특히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에게 전파될 위험이 높다.

제주도는 올해 발병 추세가 유지된다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A형 간염 환자가 발생했던 2019년의 72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방역당국은 A형 간염 환자가 발

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되며, 감염 환자 분변 등으로 오염된 환자 신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도 한다.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12~23개월의 소아 또는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강다혜기자

소방헬기 ‘한라매’ 3개월 운항 불가

8월까지 정비 작업 돌입

지난 설 연휴 기간 뜨지 못했던 제주 소방헬기 ‘한라매’가 이번에는 석 달 동안 자리를 비운다.

2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한라매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14주간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서비스에서 외주 정비에 들어간다. 이유는 소방통합지휘시스템 장착(2주)과 1000시간 비행에 따른 구간 정비(8주), 헬기방빙시스템 개선작업(4주) 등인데, 이 기간 임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앞서 한라매는 지난 설 연휴 비상근무(2월 10일~15일)에도 뜨지 못했다. 헬기 가동 50시간마다 이뤄지는 구간정비로 인해 지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항이 중단된 것이다. 당초 이 구간정비는 설 연휴 이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당시 도의 이송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

설날과 마찬가지로 한라매의 빈자리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산림청 소속 헬기가 메꾼다.

하지만 도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지방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가 이송에 나선다. 춘각을 다루는 응급환자 입장에서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국가직으로 전환돼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소방에서도 시·도별 헬기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매가 도입된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동한 사례는 총 242건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농기계 상습절도범 징역 2년 6개월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농기계를 훔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명직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같은달 말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업용 관리

기와 동력운차, 그라인더 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품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방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 과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페르카 효과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릭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용량 : 20kg

NAVER D.O.M **코코리** 검색